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25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25
2020 년 10 월 25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26108510](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26108510)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0 월 25 일

차례

1. [삼가고인의땅복을액션빔]	3
2. [소위‘진보언론’이라는환상을내려놓자]	3
3. [인도네시아총파업을지지한다]	4
4. [낙엽쓰는노예든수발드는노예든]	5

결국 이런 강제 징용 제도는 대중들의 사회에 대한 자발적 복무의사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는, 자신의 체제가 인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지키려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는 기득권들의 불안에 근거한다. 이번 대체 복무는 병역의 합리화가 아니라 그저 병역이라는 이름의 노예 제도의 종류가 늘어난 일일 뿐이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인 모든 종류의 복역 제도는 철폐되어야만 하며, 낙엽 쓰는 노예만 선택할 수 있다고 교도소 수발드는 노예 선택지를 주었다고 대중이 이를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지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1. [삼가고인의 평복을 액션빔]

이건희가 죽었다. 삼성을 지금까지 '키웠다' 고 온 언론이 외친, '초일류 글로벌 기업' 을 세웠다 고 찬양하는 이건희가 죽었다. 그가 한 반도 남쪽 자본주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라고 한들, 어찌 됐든 사람이 죽었다. 명복을 빌다.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희는 한 반도 남쪽 사회에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해주었다. 첫째로, 무노조 경영 원칙을 사방팔방 흩뿌리면서 이것이 효율적인 경영 원칙이라 자랑스럽게 외쳤다. 둘째로, 정경유착 만큼 효과적 인 성장 수단 이 없음을 모두에게 알려 주었다. 셋째로, 승계 문제로 겨우 살아 있던 노 인 내 하나 가 죽은 것이 이 시간에도 죽어 가는 수많은 일용직,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보다도 더 거대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 주었다.

지난 12 일,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이 건희가 추한 재벌 승계 문제로 호흡기 불이 며 연명 하고 있는 사이, 이 건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 회장으로 서 살 면서 정계에 돈을 뿌리고 사는 사이 노동자들은 '너무 힘들다' 는 말을 외치며 죽어 갔다. 이 이상의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투쟁 이나 온 지고 작이 틀도 되지 않아, 모든 언론은 (심지어 진보적 언론이라 자처하는 언론까지도!) 이 건희의 사망을 대서 특필 하며 '건희어 천가' 를 외기 시작했다.

죽음은 동등 하지 않았고, 누군가 의 죽음은 어느새 별 것 아닌, 일상적인 죽음 이 되어 묻혔다. 그리고 누군가 의 죽음은 '국가 적인 사건' 이 되어 온 갖 정 재 계, 언론의 이 목 알 끌 게 되었다. 참담한 사건이다. 노동자 를 탄압 하고 노동 조합 을 쳐 부순 사람 이 노동자들의 죽음보다도 더 조명을 받는 이 모순 된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한 반도 남쪽 인민을 억압 하는 대한 민국 이자, 자본주의이다. 이것이 국가와 자본의 민낯이다.

잘 가라, 이 건희.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부디 구천을 떠돌며 그 대가 죽인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속죄 하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223967>
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672607>
sid=101

2.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자]

한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마치 사회 문제의 근간 이라도 되는 양, 보수 언론을 몰아내고 진보 언론이 성립 하면 세

상이더좋아질것이라는기대들을품었던적이있었다. 그렇게 < 안티조선 > 운동이시작되었고, 한겨레신문이창간되고, 경향신문이민주화되었다.

그리고대충 20 년즈음이지났다. < 안티조선 > 운동의선봉장이었던진중권씨는주간동아에연재를시작했고, 판지일보를창간하여보수언론을독하게비판하던김여준씨는음모론자가되었고, 경향신문은빵집으로부터 5,000 만원을받고노동조합과관련한기사를내려주었다. 그리고한겨레는 LG 본사청소노동자들의투쟁을지지하는의견광고에서, 회장님의존함과회장고모님의언급을삭제해달라고노동조합에요구했다.

물론우리는한겨레의입장을심분이해한다. 한겨레도자본주의사회에서살아가야하는기업이고, 직원들임금은챙겨줘야하고, 그러려면 LG 와같은대규모광고물주의심기를거스를수없을수밖에없다. 아무리한겨레가사회진보에대하고한이상과, 독재에대한혐오와, 민주주의에대한열망을가지고있다고해도, 밥은먹어야살수있는것이다.

그리고그렇기에, 우리는소위‘진보’라불리는정치적이데올로기에다시한번의구심을던질수밖에없다. 한겨레가아무리‘진보적’인언론이고, 민자당과그후예들을정치적으로공격하고, 노동자들의처우에그나마관심을가지고기사를써내면무엇하는가. 결국은경영적관점에서투쟁하는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들의가슴에대못을박는데말이다.

우리는한겨레가한국사회민주화를향한투쟁에서한몫을담당하던동지라는사실을추호도의심하지않는다. 그리고오히려그렇기에, 이러한상황에서, 단지사회의“민주화”만으로, 누가권력을잡는지만으로어떤것도변하지않음은더욱명확하게보인다. “민주화투사”마저, 돈앞에서자본에굴복한다면, 그자본을타도하기위한투쟁은사회의“민주화”로, 누가권력을잡는가로결정되지않는것이아닌가.

우리 < 아나키스트연대 > 는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 LG 트윈타워청소노동자들의투쟁을지지하고응원한다.

정치적권력에기대지않은, 현장에기반한노동자들의경제적이고직접적인투쟁이사회의진정한변혁을가져올것이라믿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4>

3. [인도네시아총파업을지지한다]

태국에이어인도네시아역시최근난리를겪고있다. 인도네시아의회통과시킨’일자리창출특별법 (옴니버스법)’ 때문인데, 이는 70 여개법률의 1,200 여조항을일괄제정및개정하는것이다.

하지만이는인도네시아정부, 의회의주장과달리퇴직금감축, 최저임금산정방식변경, 무기한계약직허용, 외주하청업무범위제한삭제, 유급출산휴가및생리휴가폐지, 퇴직금삭감, 초과근무허용등노동자의권리를억누르는내용을담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역시한국과마찬가지로코로나 19 를평계로시위가허용되지않는다며집회의자유를제한하려고있으며이법이침체된인도네시아의경기를되살릴수있다고말하고있으나이것이누구의배를불리기위한것인지비슷한길을걸어온우리는알고있다.

때문에아나키스트연대는인도네시아노동자들의시위에깊이공감하며이를지지한다. 노동자의권리는노동자스스로의손으로지켜내는것이며, 이를후퇴시키려는이들과손을잡고하나씩하나씩이를내어주게되면이것을다시되찾는데에는어마어마한노력과시간이필요하다. 부디인도네시아의노동자들이스스로의손으로노동에재갈을물리려는시도를분쇄해내기를바라마지않는다.

<http://omn.kr/1pkfg>

4. [낙엽쓰는노예든수발드는노예든]

2018 년헌법재판소에서대체역을병역종류로규정하지않음을헌법불합치판결을내린지 2 년만에대체복무제가시행된다. 이번에알려진대체복무는교도소등의시설에서근무하는방식이다. 정부는이것으로병역의무와양심간의조화를이루겠다말하지만, 복무기간은군복무의 2 배인 3 년에달하며필요성이없음에도강제적합숙근무체제를고수함으로써사실상의징벌적복무체제임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물론대체복무의방식만이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 문제는이대체복무라는것또한결국또하나의현대판노예제도에불과하다는것이다. 자신의의사와무관하게수감이나복무냐를강요받으며신체의자유를박탈당한채잡혀들어가어떤민주적의사결정도없이위계적규율에따라윗계급의명령에절대복종하며그들의이익에봉사해야하는또하나의노예제도라는것이다. 정부는이러한방식을취하는근거로, 이렇게하지않으면아무도징병에응하지않을것이고우리사회또한지킬수없을것이라말한다. 하지만대중들이자기가속한체제가지킬만한가치가있는것이라고생각한다면왜대중들이자발적으로지키려들지않을것이며, 또왜징병을할필요가있겠는가? 군대라는것이합의된합리적규율에따라돌아가고민주적의사결정제도를통해운영되어민중의요구에진실로복무할수있는집단이라면, 지금처럼억압적권위에따라계급이지시하는것을따르는노예와노예주의집단이아니라면왜대중들이이를기피하겠는가?